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역사회 역할’ 토론문

강 성 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 연구주제는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근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 4.3평화재단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광주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발표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 제목이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역사회 역할’인데 발표 내용으로 보면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합니다. 또한 토론자는 머리말에서 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선명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토론자는 이 발표주제의 필요성을 ‘4.3’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연구물이 없기 때문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서론에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발표자는 ‘4.3 기록물’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던데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은 없었는지 궁금하며 있었다면 어떤 자료와 내용 등을 참고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3 기록물이 여타 기록물과 비추어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징은 무엇이고, 4.3기록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넷째, 제주의 유네스코 등재 경험에서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앞의 두 유산 등재과정과 기록유산 등재과정은 차이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표자는 광주의 사례를 비추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주의 등재경험과 광주의 사례가 발표주제인 ‘지역사회 역할’ 측면에서도 정리되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면 어떨까 합니다.

다섯째,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험이 있는데 그 중 4.3기록물의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왜 광주의 사례가 중요한가요? 또한 광주의 경험에 대한 사례는 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다른 자료는 없나요?

여섯째, 토론자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반대 운동 사례가 제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지역사회 구성원별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점을 살펴본다면 4.3 기록물의 세계기

록유산으로서의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생각하는 4.3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할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기록유산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토론자는 4.3 기록물이 유산으로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제주 4.3은 지역사라고 생각되나 토론자는 제주 4.3이야말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자,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사건에 대한 기록물의 중요성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화해와 상생 그리고 인권이라는 미래적 명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발표 자료가 이런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토론자는 바랍니다.